

모바일 시장 지배자 '모비딕' 본격 출범! <양세형의 숏터뷰> 등 재기발랄한 콘텐츠에 참석자 호응 뜨거워



SBS가 모바일 콘텐츠 브랜드 '모비딕'을 론칭하고 모바일 미디어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모비딕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소비 행태에 맞춰 젊은 시청자들의 니즈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SBS가 만든 웹, 모바일 전용 브랜드다.

6월 20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열린 모비딕 론칭 제작발표회에서 박재용 모바일제작CP는 "젊은 시청자들이 TV 앞을 떠나고 있다. 그들은 웹 모바일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 시장은 해마다 30%씩 성장하고 있다. SBS는 모바일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비딕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비딕(Mobidic)은 'Mobile'과 'Dictator'를 결합한 이름으로 모바일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이날 제작발표회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기자와 사원이 몰려 SBS가 만드는 본격적인 모바일 브랜드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석천, 양세형, 조세호, 남창희, 이용진은 시종일관 재기발랄한 토크로 웃음을 선사했다. 또 모비딕 콘텐츠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양세형의 숏터뷰> 1편이 공개되자 SBS홀 여기저기서 빵빵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양세형은 <양세형의 숏터뷰>를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짧고 재미있고 핵심적인 인터뷰"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국회의원 표창원을 인터뷰하며 순간순간 개그를 치고 빠지는 양세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리단길 홍사장>은 경리단길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오픈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홍석천은 "떡방, 집방, 창업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은 가야 한다"며 욕심을 냈다. 대국민 음원 구걸 프로젝트 <한 곡만 줌쇼>의 조세호, 남창희, 이용진은 "국민들로부터 곡을 받아 리우 올림픽 주제를 제작하고 싶다. 제2의 '오 필승 코리아', 제2의 '꼭짓점 댄스'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용 CP는 "모비딕은 주 1회, 12회 정도의 시즌제로 간다. 반응을 봐가면서 변화를 주고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모비딕은 심의를 받지 않는 모바일 웹의 장점을 살려 자유로운 표현, 제약 없는 수위가 담긴다. 밀레니얼 세대와 30-49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하여 이들의 입맛에 맞는 색다른 웹 예능, 스낵커블 영상, 글로벌 공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향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시청자 맞춤형 아이템을 릴리스한다. 또 각 플랫폼과 SNS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 페이스북에는 5분 안쪽의 콘텐츠를 올리고 유튜브에는 해외 팬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넣는 식이다.

20일 오후 3시에 <양세형의 숏터뷰>와 명탐정 코난으로 변신한 방송인 유재환의 수

사물 스타일 맛집 가이드 <맛탐정 유난>이 포털과 SNS를 통해 공개됐다. 이외에도 2016 최고의 대세 아이돌 I.O.I가 정체불명의 괴담지를 직접 찾아가 그 실체를 확인하는 호러 예능 <I.O.I의 괴담시티>, 봄이 라디오를 통해 사연을 받아 직접 선물을 배달하는 대국민 황제 퀴즈쇼 <봄의 럭키 프라이데이>, 차세대 영상기술인 VR과 <인기가요>의 만남인 <인기가요 VR> 등 장르와 카테고리를 망라한 10여 개의 모바일, 웹 전용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모비딕 콘텐츠는 네이버 TV캐스트, 다음(카카오) TV팟 등 포털과 피카캐스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향후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론칭한 Tmall에서 뷰티 콘텐츠와 커머스를 접목한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리스트>

콘텐츠 이름	내용	릴리스 일정	출연자
양세형의 숏터뷰	대세 개그맨 양세형의 파격적인 인터뷰쇼	매주 목 17시	양세형
맛탐정 유난	수사물 스타일의 맛집 가이드	매주 화 17시	유재환
봄의 럭키 프라이데이	2시간 만에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모바일 황제 퀴즈쇼	매주 금 10시	봄
I.O.I의 괴담시티	2016 최고의 대세 아이돌 I.O.I가 직접 찾아가 증명하는 괴담의 실체!	매주 월 22시	I.O.I(전소미,최유정,김도연,주결경,김소혜)
인기가요 VR	차세대 영상기술인 VR 기법과 한류 콘텐츠 <인기가요>의 만남	미정	아이돌 그룹
경리단길 홍사장	100% 실제상황! 이태원 큰손, 홍사장의 경리단길 레스토랑 론칭 리얼리티 예능	미정	홍석천
한 곡만 줌쇼	국민 음원 강탈단, 파이브스타의 국내 최초 대국민 음원 구걸쇼	미정	조세호, 남창희, 양세찬, 이용진, 이진호
쫄개라 (조커의 게릴라 라이브)	작곡가 조커와 톱 가수의 당신을 위한 게릴라 라이브!	미정	조커, 가수 미정
백종원의 모바일 3대 천왕	백종원의 3대 천왕 모바일 버전	미정	백종원

시청률, 화제성 1위 <닥터스> 첫방부터 터졌다!

로코킹 김래원의 귀환, 박신혜의 연기 변신에 호평 쏟아져

6월 20일(월) 시작된 <닥터스>(극본: 하명희, 연출: 오충환)가 첫 회 시청률 14.7%(닐슨코리아/수도권)를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이는 요즘 주간 드라마로서는 보기 드문 시청률이고 <태양의 후예> 첫 회 14.4%를 뛰어넘은 매우 고무적인 수치다.

전국 시청률 역시 12.9%를 기록하여 경쟁작인 <몬스터> 9.7%, <뷰티풀 마인드> 4.1%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단숨에 월화극 1위,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김래원은 전작 <핀치>의 어둡고 거친 박정환의 이미지를 떨치고, 따뜻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총각 선생님 지홍으로 완벽 변신했다. 청순한 이미지의 박신혜 역시 거친 말투와 반항기 가득한 눈빛, 강렬한 액션 신으로 불량소녀로 거듭났다.

김래원-박신혜의 싱그러운 모습과 밝은 에너지는 화면을 가득 채웠고, 하명희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오충환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빛을 발했다.

시청자들은 “훈훈한 냄새가 난다”, “더도 덜도 말고 이대로만!”, “김래원 때문에 채널 못 돌리겠다”, “<닥터스> 덕분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즐겁게 보낼 듯” 등 드라마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을 쏟아냈다.

이런 호평에 힘입어, <닥터스>는 21일(화)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드라마 부문 일간 온라인 화제성 순위에서 <또 오해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일 하루 동안 온라인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SNS, 동영상 조회 수에 대한 정보를 집



게한 결과이다.

하루 동안 들불처럼 번진 <닥터스>에 대한 입소문과 기대감으로 2회는 16.2%(닐슨코리아/수도권)로 한 단계 더 뛰어올랐다.

다양한 군상이 모이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장과 휴먼, 멜로 이야기를 그릴 <닥터스>는 매주 월, 화 밤 10시에 방송된다.

금요일에 완전정복 이어간다! <정글의 법칙 in 뉴칼레도니아>

윤박, 김영광, 한재석, 현주엽... 꽃미남, 꽃중년들의 활약기 7월 1일 첫 방송



천국과 가장 가까운 뉴칼레도니아의 비경 공개

<정글의 법칙 in 뉴칼레도니아>(연출: 이세영)가 7월 1일(금) 첫 방송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해안에서 1,200km 떨어진 뉴칼레도니아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섬’, ‘세상의 모든 과량을 담은 섬’으로 불리는 환상의 섬이다. 또한 “바람과 흰 천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라는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번 <정글의 법칙>은 전반전은 뉴칼레도니아의 푸르른 바다에서, 후반전은 뉴칼레도니아의 밀림과 평원에서 펼쳐진다.

전반전 ‘꽃미남 특집’, 후반전 ‘꽃중년 특집’

전반전은 ‘꽃미남 특집’이다.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예능 베테랑 홍석천, 미남 개그맨 허경환, 라이징 스타 윤박, ‘모델 어벤저스’ 중심인물 김영광, ‘만찐남’으로 불리는 비주얼 짱패 아스트로 차은우의 출연만으로도 눈이 즐거운데, 거기에 홍일점으로 소녀시대 유리가 합류했다. 유리의 출연은 <정글의 법칙> 사상 최초로 소녀시대 멤버가 출연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반전이 ‘꽃미남 특집’이라면, 후반전은 ‘꽃중년 특집’이다. 족장 김병만, 근육 짱패 god 박준형, 원조 꽃미남 귀공자 한재석, 90년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녔던 현주엽, <태양의 후예> 속 신스틸러 데이비드 맥기니스 등 40대 부족원들은 국민 언니 최여진과 요즘 대세 걸그룹 트와이스 정연 앞에서 꽃중년의 매력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정글의 현실은 ‘꽃미남’ 아닌 ‘꽃거지 특집’

전반전은 부족원들이 직접 생존지를 찾아가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전통 나무배인 ‘피로그’를 이용해, 바람과 흰 천 그리고 부족원들의 화합으로 생존지를 찾아가는 사이, 꽃미남 부족원들은 꽃거지로 급변한다. 187cm에 9등신 몸매 김영광은 추위를 이기려고 ‘폴더’로 변신하는 신기한 장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후반전의 꽃중년 부족원들은 정글에서 육지동물과 끈질긴 사투를 벌여야 했다. 또 두려움을 떨치고 전원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기도 했다. 도전은 전원이 했으나 몇 명이 성공하는지는 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연진, 성격까지 꽃미남·꽃미녀 인증 완료

리얼 예능에 처음 출연한 한재석은 <정글의 법칙> 최초 부부 릴레이 출연자 기록을 세웠다. <정글의 법칙 in 아마존>에 출연했던 박솔미가 남편의 출연을 적극 추천하며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기도 했다고 한다.

연출을 맡은 이세영 PD는 “이번 부족원들은 이미지와 다르게 소박하고 털털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박은 정글에서 뛰어난 개그감으로 전반전의 분위기를 주도한다. 김영광은 순수 청년을 넘어 시골 청년 같은 순박함을, 유리는 수영은 물론 톱질까지 능수능란하게 하는 보이시한 매력을 선사한다. 데이비드 맥기니스는 미국 교포 출신 박준형, 최여진과 어울려 글로벌 팀을 구성하는 등 한국 예능에 바로 적응했다. 최여진과 정연은 스스럼없이 40대 꽃중년과 어울리며 부족원으로서 제 몫을 훌륭히 해낸다.

금요일 예능 최강자의 자리를 이어갈 <정글의 법칙 in 뉴칼레도니아>는 7월 1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환경부와 2016 도랑살리기 캠페인 협약식 체결

6월 20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SBS와 환경부가 주최하는 '2016 SBS 도랑살리기 캠페인,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으로'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김진원 SBS사장, 1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수생태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도랑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도랑살리기 운동은 물순환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도랑과 실개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하천중심의 전통적, 문화적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SBS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물은 생명이다>를 통해 4대강 수계지역 46개 자치단체의 도랑살리기 전개과정을 취재해 방송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SBS물환경대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이달의 PD상' 수상



왼쪽부터 장경주 PD, 정문명 작가, 문성훈 조연출

<그것이 알고 싶다> '세타(θ)의 경고! 경고! 경고!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연출: 안윤태, 배정훈, 장경주)가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제194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TV 시사·교양 부문 수상작인 <그것이 알고 싶다> '세타(θ)의 경고! 경고! 세월호와 205호 그리고 비밀문서'는 "세월호가 지금 다시 침몰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304명의 사망(9명 실종)이라는 구조 실패 이면에 감춰져있던 미스터리를 추적했다. 또한 SNS 빅데이터 조사와 바뀐 구조시스템 분석을 통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팟캐스트 네이밍 공모전 오신숙 사원 최우수상

라디오센터는 모바일 콘텐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팟캐스트 채널 '고릴라팟'을 7월 1일 론칭한다. 론칭에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네이밍 공모에 120여 건의 후보작들이 몰려 경합을 벌인 결과, '고릴라팟'을 응모한 노사협력팀 오신숙 사원(사진)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오신숙 사원은 "고릴라팟의 팟은 팟캐스트 'pod'의 의미도 있지만,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향아리라는 'pot'의 의미도 있는 중의적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상품권 50만원): 오신숙 사원(노사협력팀)

우수상(상품권 5만원): 총 10명

박기홍 부장(편성팀장) | 송영재 부장(시사교양국) | 김석희 차장대우(문화사업팀)
박정식 사원(송출기술팀) | 손명찬 부장(A&T 중계기술팀) | 손승필 사원(A&T CG팀)
김보람 파견사원(미디어넷 스포츠골프편성팀) | 이육규 사원(미디어홀딩스 경영관리팀)
배성현 사원(플러스 콘텐츠프로모션팀) | 하진 과장(콘텐츠허브 플랫폼사업팀)

인터뷰 이 사람 - 라디오편성기획팀장 김영우

'고릴라팟'으로 지상파 라디오 한계 넘는다!

SBS가 팟캐스트를 한다.

기존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인 고릴라에 팟캐스트 전문 채널인 '고릴라팟'을 7월 1일(금) 오픈한다. 경제, 역사, 문화, 상담, 여학 등의 카테고리 안에 1개 이상의 콘텐츠를 담고 있고, 보도국 뉴미디어실에서 만드는 곱롬 콘텐츠도 같이 편성했다. 고릴라팟은 고릴라앱으로 들을 수 있다. 덧붙여 지난 4월 11일부터 DMB라디오를 통해서 24시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고릴라엠'을 서비스하고 있다. 2시간 단위로 음악 장르를 나눠 멘트 없이 음악만 서비스하고 있다. 말 많은 방송이 싫다면 고릴라엠이 제격이다. 고릴라엠 또한 고릴라에서 들을 수 있다.



팟캐스트를 왜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에서 왜 해야 하나?

지상파의 위기인 상황에서 라디오는 그런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라디오 역시 광고와 청취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를 위협할 수 있는 나름의 장점을 가진 오디오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생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라디오도 지금 이 모습으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모바일로 급격히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디오도 모바일에 거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에서는 방통위의 심의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발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팟캐스트가 가장 적격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고릴라팟을 출범시키게 됐다.

지상파와 팟캐스트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아직은 상호보완적 측면이 더 크다. 가령 라디오를 듣는 사람과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확연히 구분된다. 예를 들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은 지상파의 정체되고 군더더기 없는 형식을 싫어한다. 낱것 그대로, 좀 더 현실적인 콘텐츠를 원한다. 또한 기존 라디오 광고주와 팟캐스트 광고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팟캐스트 광고주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광고주의 외연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팟캐스트 <떡국열차>를 직접 기획·제작·진행한다.

팟캐스트란 영역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기존 라디오와 청취자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굴러가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할지, 팟캐스트가 라디오의 미래가 될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였다. 그래서 미리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했는데 그나마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가 정사가 아닌 생활사, 특히 우리 선조들의 의식주였다. 그래서 <떡국열차>를 만들게 됐다. 제목에 대한 오해가 많던데,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이야기', 이게 풀 네임이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이 궁금한 분들에게 <떡국열차>를 추천한다.

이번에 오픈할 팟캐스트 중 몇 개만 추천하자면?

다가오는 여름에 대비해서 공포 이야기를 담은 팟캐스트를 하나 만들었다. 제목이 <곡>이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니츠팔로마 시즌2>를 추천한다. <니츠팔로마 시즌2>는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의 명대사를 직접 출연진들이 연기해보고 이 부분을 다시 중국어로 배우는 형식이다.

그리고 아직 제목이 미정인 한데 술과 안주를 주제로 한 팟캐스트도 있다. 일단 안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안주에 어울리는 전 세계의 술을 이야기하는 식이다. 물론 가격대별 맛집도 알려 줄 것이고 술도 가격대별로 알려줄 예정이다.

<고릴라팟 라인업>

기존 팟캐스트	(시네타운 나인틴)(영화) <떡국열차>(국사)
라디오센터 신규 자체제작	<따르릉>(인터뷰) <책잇아웃>(책과 여행) <스피치 이지>(화술) <개세이야>(경제) <니츠팔로마2>(외국어) <영어 여관>(외국어) <곡>(공포물) <Job담>(직업 소개) <불법과외>(연애) 인생문제 해결(상담)*제목 미정 술과 안주(음식) *제목 미정
보도국 뉴미디어실 '곱롬'의 콘텐츠들	<이건머니>(경제) <북적북적>(책) <워니볼>(스포츠) <목동살롱>(지식) <최종의견>(법률) <뽀안거탑>(건강 의학)

SBS 미디어넷

웨이보 누적 조회수 1억 건 돌파 <더 콜라보레이션>



한중 합작 뮤직쇼 <더 콜라보레이션>이 6월 28일 (화)부터 매주 화요일 밤 10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텐센트비디오와 SBS미디어넷 채널을 통해 동시에 방송된다. <더 콜라보레이션>은 한중을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션들이 한 팀을 이루어 맞붙는 콜라보 대결로, 곡 선정부터 프로듀싱까지 아티스트들이 직접 참여하여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표로 박재범, 지코(블락비), 송민호(위너), 강승윤(위너)이 출연하며 중국은 설지겸과 호하, 왕역흠, 우침이 출연한다. MC는 중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장위안과 <쾌락대본영>에 출연 중인 우썬이 맡았다. 1회는 아티스트 개별공연이 펼쳐지며, 2~9회는 네티즌 사전 투표로 선정된 파트너와 한중 콜라보 무대로 경연을 벌인다. 회차별로 현장 투표를 통해 1위를 선정하며, 한국에서 라이브로 펼쳐지는 10회 파이널 무대에서는 회차별 1위곡을 포함해 총 12곡이 경합한다.

<더 콜라보레이션>은 본 녹화 전 이미 웨이보 누적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중국 내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SBS 골프

한국여자오픈 30시간 생중계 대기록 세우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내셔널 타이틀 <기아자동차 제30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가 6월 16일부터 나흘간 베어즈베스트 청라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주관방송사인 SBS와 SBS골프는 대회 30주년을 기념해 볼거리 넘치는 중계로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SBS골프는 국내대회 최초로 30시간 생중계라는 역대 최장시간 대기록을 세웠고, 라이브 헬리캠을 이용한 항공촬영과 스테디캠을 장착한 세그웨이 등 신규장비로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SBS골프 모바일 '앱돌이'와 함께 인증샷 찍기 이벤트가 진행돼 선수와 갤러리가 함께 즐겼고, SNS로 실시간 돌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에 오지 못한 골프팬들에게 대회소식을 전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한 번 들으면 빠져드는 <배 텐>의 매력 <배성재의 텐>

파워FM(수도권 107.7MHz) 월~일 오후 10:00~11:00



여성들이 지성과 에릭, 남공민과 사랑에 빠지겠다고 사라진 밤 10시.

홀로 남아 허무한 밤을 보내고 있을 남성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남성들을 위한 라디오가 생겼다.

봄 개편에 맞춰 파워FM에

아심차게 치고 들어온 <배성재의 텐>, 줄여서 <배 텐>은 남심 저격 방송답게, 축구 캐스터로 유명해져 유독 남자들에게(만) 인기가 많은 배겨슨, 배성재 아나운서가 DJ를 맡았다. 따라서 밤 10시 파워FM에서는 시크한 듯 친절한, 무심한 듯 유머러스한, '츄데레' 배성재의 이중적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게스트도 칙칙...아니 화려하게 '죄다' 남자다.

막말 전문가 개그맨 정용국, 예측 승률 0의 박펠레 박문성 해설위원, 시노자키 아이랑 친한 'MAXIM' 기자 이석우, 호구마 권혁수, 배신맨 만화가 이말년, 이렇게 남탕으로 주 6일을 보내고, 일요일은 귀청소의 날, 꿀성대 야구여신 윤태진과 함께한다.

그리고 제8의 게스트도 있다. 드립력 좋은 팟수(DAUM 팟 선수)들이다.

녹음, 생방 모두 DAUM 팟을 통해 국내 최초로 생중계되면서, 팟수들이 채팅을 통해 방송에 참여하여 서로 공격하고 시비 거는 디스 드립도 들을 수 있다.

어쨌든 <배 텐>은 중독성이 있다.

여자에 대해 '1'도 모르는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논평하거나, 군대 얘기, 스포츠 얘기, 게임 얘기, 슬램덩크 얘기 등등 남자들의 종목에 대해 대놓고 토크하기도 하고, 그 잘난 배성재가 청취자들에게 능욕도 당하는...

이런 라디오를 듣고 싶다면, <배 텐>으로 오라.

박지성과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런던에서 즐겨 듣는다는 라디오, 남심 저격하러다 여심을 생포해버린 라디오.

배스피((배 텐)+코스피, 팬들이 붙여준 <배 텐>의 인기지수)가 천만 돌파하는 그날까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

-연출 허금욱 PD(라디오센터 라디오 2CP소속)

알고 지내요 - 미화원

"SBS에서 일한다고 할 때 땀땀하고 자랑스러워"

호칭을 뭐라 해야 좋을지 물어보니 '여사님'이 제일 좋단다. '여사'는 '육영수 여사'나 '순악질 여사'만 익숙해서 쓰익했는데, 알고 보니 요즘 간병이나 미화원에 널리 퍼진 호칭이다.

SBS에는 40명의 '여사님'과 10명의 '선생님'이 있다. 한주 PMC 소속인 이들은 매일 새벽 5시 반 즈음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각자 담당하는 층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를 끝낸다. 매일 아침 9시 반에는 지하 4층 용원실에서 열리는 조회에 참석하고, 지하 3층 창고에서 비품을 받아 다시 담당 층으로 돌아가서 유리와 계단, 벽 등을 청소하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점검한다. 4시에 퇴근할 때까지 담당 층을 수시로 점검하고, 바닥 코팅 등 품이 많이 드는 공동 작업에는 A조, B조로 나뉘어 단체로 투입되기도 한다. 휴게 시간은 8시~9시 반, 12시 반~2시 두 번 있다. 대기근무조는 6시까지 남아서 일하는데 닷새에 한 번꼴로 돌아온다. 격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토요일 근무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일요일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각 층에 한 사람씩 기본적으로 배정되고, 손이 많이 가는 층은 두세 명 배정되기도 한다.

이들은 업무 중에 가장 힘든 것은 화장실 청소라고 입을 모았다. 음식물이나 음료수 용기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는데 일일이 재활용 분류 작업을 해야 하니 그런 것들은 사무실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했다. 또 휴지는 번기에 버리고 쓰레기 통에는 여성위생용품만 잘 처리해서 넣어달란다.

그 외에도 애로사항은 쓰레기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음료수 병에다 공초 등 쓰레기를 버려서 재활용 분류 작업이 힘들고, 몇몇 층은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단다. 여자 반장이기도 한 박순옥 씨는 "외부에서 주문할 때는 먹을 만큼만 시키고, 빈 용기는 화장실이 아닌 서쪽 라운지 쪽 싱크대에 내다 놔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관과 로비, 지상주차장을 담당하는 이상규 씨는 "지정 흡연 구역 바닥이 자갈로 돼있어서 공초를 집어 내기 힘들다"고 말을 꺼냈다. 담배공초는 쓰레기통에 넣어달라는 부탁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빗자루로 쓸 수 있는 바닥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SBS라서 좋은 점을 말해달라고 하니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의외였다. "구내식당이 맛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과 점심 두 끼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데도 식단이 부실하다거나 지겹다는 불만이 없다. 또 SBS 직원들은 지성인들이라 미화일 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단다. 그거 혹시 부탁 사항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란다. 백화점처럼 외부인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서 매일 보는 사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단다. 또 남들에게 SBS에서 일한다고 할 때 어깨가 올라가고, 매년 11월에 받는 창사기념기도 고맙고 뿌듯하다고 한다.



왼쪽부터 김경연, 박종순, 장경희, 박순옥, 이상규, 권순임, 노기녀 씨

박종순 씨는 지방에 살 때부터 'SBS 빠순이'였고, 상경 후 우연히 처음 본 SBS 사옥 모습에 감격하여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미화원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꿈을 이뤘다며 웃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적응이 안 돼 그만둘 생각도 했지만, 그때마다 처음 출근할 때 가족들과 약속한 것을 떠올렸고,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버텼다고 한다.

인터뷰 다음날 여자 반장인 박순옥 씨가 찾아 왔다. 다른 동료들에게 인터뷰 얘기를 하니 "껌을 버릴 때는 꼭 종이에 싸서 버려달라"는 말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성인인 SBS 사원들은 껌을 버릴 땐 꼭 종이에 싸서, 담배공초는 바닥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도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떠나길 바란다.